

“대학·지역,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전국 대학 총장에 지역상생 특강... RISE 기반 대학의 역할 강조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전국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19~20일 양일 간 열린 한국대학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의 대학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전국 135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RISE의 구도와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RISE 체계에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해 설명에 나선 양 총장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진단한 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총생산(GRDP)의 1.34%를 차지하는 전북대의 지역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을 제시하며, 대학과 지역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역설했다.

양 총장은 “전북대의 지난해 총경 제적 가치는 6조3,300억원으로 스타벅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19~20일 열린 한국대학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의 대학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스 매출액의 2배 이상인 데다 지난해 전북대의 GRDP도 전북 지역 전체의 1.34%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면서 “지자체는 지역 대학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간과하고 있으나 이번 리이즈 체계로 인식을 전환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수 유학생 유치로 지역생활 및 정주 인구를 늘리고,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지역 재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총장은 지역상생의 전행으로 자리매김한 위스콘신대학과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룬 노스캐롤라이나주, 과감한 혁신으로 세계혁신평가에서 세계 2위에 오른 애리조나주립대 등의 사례를 들며 지난해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북대의 혁신을 소개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전북 RISE가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지역의 현안해결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전북대가 지역의 혁신주체들과 역할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개교 77주년 학교 역사 자료 수집

박물관·역사관 주관... 8월 중순까지 10월부터 박물관 특별전 통해 공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아 1947년 개교부터 현재까지의 학교사 자료를 수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집 대상 자료는 지난 77년간의 대학 발전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와, 설립 초창기였던 1947~1952년의 대학 자료, 교수 연구 활동 및 교육관련 자료, 학생 운동 및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 등이다.

공모는 박물관·역사관 주관(관장 임혁용)으로 이뤄지며, 접수기간은 8월 중순까지다.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jnu.ac.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공모된 자료는 10월부터 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특별전을 통해 공개된다. 이후 출판 자료는 전시 종료 후 협의를 통해 대학에 기증되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대박물관(063-270-3951)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 2기 추가 모집

초중고생 4500여명 추가 지원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 2기 추가 모집에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2기 신청이 호응 속에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 초·중·고교 4,500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강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오는 24~28일 2기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희망자는 온라인사이트(<https://www.jheenglish.co.kr/>)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2기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9주간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있는 만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재학생 17명 대상

도내 공공기관 탐방 추진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13일과 19일 도내 공공기관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3일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19일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각각 방문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관 및 직무 정보 △채용 트렌드 및 산업 동향 △채용 절차 및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 탐방에 참여한 우정현(물류무역학과 3년) 학생은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업과 직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다른 기업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숙경 센터장은 “청년층 대상 고용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청년과 도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취업-채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탐방 기회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내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0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지역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렸다.

전북 교육경쟁력 향상 도모

서거석 교육감, 전주 학부모·교직원과 공감 토크

서거석 교육감이 20일 전주 관내 학부모·교직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지역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서 교육감은 특강을 통해 △학력신

장 △교원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10대 핵심과제 등 전북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AI기반 미래교실 구축, 늘봄학교, 독서 활성화 방안, 구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 학생 상담공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는 서거석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학력 신장과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과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교육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지난 11일 무주를 시작으로 서 교육감은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가족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감토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력신장,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AI미래교실 구축 등 전북의 교육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현장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강화 대책 추진

전북자치도교육청, 안전보건 이행사항까지도 관리

고위험 작업 소규모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이행사항까지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고위험 작업 소규모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건설공사 안전보건활동 체계적 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항 확인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북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총공사비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지붕 개·보수, 외부 도장 등 위험한 작업이 있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이 공사현장의 위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안전점검

과 공회회의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위험성평가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가 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년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직무연수

전북자치도교육청, 200여명 대상... 청렴도 제고·전문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교육연수원에서 기술직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사관리 분야에 대한

부패 고리 차단을 위한 청렴교육 △장 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이 없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전문교육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건축물에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주 시설과장은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육시설의 품질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며 “교육시설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 미래지향적인 시설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9월 말까지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초중고 등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부터 2024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9월 말까지 교육청을 비롯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그리고 초·중·고·특수학교까지 진행된다.

먼저 전북교육청은 21일 전북대 간호대학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및 지역 대표교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참가자들은 전문가로부터 전북 지역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주요 감염병의 역학적 특징에 관한 이론 강의를

듣는다.

이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 무주와 임실을 시작으로 7월 5일까지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최근 백일해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업무 담당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대응 태세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지역기반ICT경영 커풀링사업단(단장 김효진)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 아이디어 공모전 을 성황리에 마쳤다.

전북자치도 발전 방향 아이디어 공유

전주대, 아이디어 공모전... 'NEWBORN전북' 대상 차지

전주대학교 지역기반ICT경영 커풀링사업단(단장 김효진)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 아이디어 공모전 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본선에 오른 8개 팀 및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에 대한 영상 제작의 기회 의도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후 1~3분 길이의 아이디어 영상을 공유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NEWBORN전북'이 차지했다. 대상을 포함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개 팀에게는 총 7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김효진 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의 다양한 기획 능력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며 “영상 상영은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기관의 홍보 공간에 상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K-MOOC 협약' 체결

호원대학교(총장 김희성)가 최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자율참여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각 기관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업로드해 K-MOOC 플랫폼에 탑재할

강좌 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K-MOOC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MOOC 플랫폼이다.

이번에 선정된 강의는 '예술, <빛> 대화'와 '생애주기별 인간발달의 이해'이다. 호원대를 대표하는 우수 학부(과)인 공연미디어학부 김성태 교수와 간호학과 박진아 교수가 맡아 개발했다. /권산=이재훈 기자